

# “광주, 4차 산업혁명 세계에서 가장 선도 도시 만들겠다”

## 윤석열 후보 광주 7대 공약 발표

### 국가 AI데이터센터 구축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등 호남 민심 잡기 총력 5·18정신 헌법 개정 합의 중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6일 광주를 방문해 광주선대위 필수 결의대회에 참석하고, 광주지역 7대 공약을 발표하는 등 호남 민심 잡기에 총력을 썼다.

윤 후보는 이날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선대위 필수 결의대회에서 “광주·호남에서 몇 퍼센트의 지지율이 나오든 상관없이 AI 디지털 데이터 기반의 선도도시 광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주가 4차 산업혁명에서는 대한민국, 아시아, 세계에서 가장 선도적인 지역이 되도록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결의대회가 끝난 뒤 지역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광주공약에 대해 설명했다. 윤 후보가 내놓은 광주 공약은 ▲국가 AI데이터센터 구축 ▲광주~영암간 초(超)고속도로 건설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도심 광주공항 이전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등이다.

윤 후보는 우선 광주를 인공지능 대표 도시로 조성하고, 대한민국의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광주에 AI데이터센터·AI 산업 융합 클러스터·AI 반도체 특화단지 등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광주를 중심으로 한 사회간접자본시설(SOC) 구축 관련 공약도 내놓았다. 광주~영암 간 초고속 도로를 건설해 광주와 포틀랜드(F1) 경기장을 갖춘 영암을 잇는 47km 구간을 독일의 자동차 전용도로 아우토반처럼 만들어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도로 등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윤 후보는 또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를 조기 착공해 신(新)남부광역경제권을 형성하고 국가균

형발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도시에 위치한 광주공항 이전 공약도 내세웠다. 광주 민간공항의 기능을 무안 국제공항으로 통합해 도심 공동화 현상을 제거하고 분절된 도시 생활권을 하나로 연결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광주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은 이미 예고된데다, 광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내용이 공약에 누락돼 이날 윤 후보가 발표한 광주공항 이전 공약은 알맹이가 빠졌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군 공항 이전과 관련해서는 이전 지역의 반발을 고려해 지원책이나 정부 예산 배정 등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중재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또 광주의료원 설립과 별개로 광주에 방사선 의료센터와 암 예방검진센터를 갖춘 서남권 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광주 서남권은 전국 최고 수준의 고품질 지역으로 암 질병 부담이 크지만, 암 진단 및 치료 기관이 수도권과 동남권에 편중됐다”며 “광주가 광산업 비교우위가 있다는 점에서 광주에 설립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상으로는 ▲빛그린 국가산업단지를 중심으로 미래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조성 ▲차량용 질화갈륨(GaN) 전력반도체 클러스터 구축 ▲미래차 소부장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특화지원센터 구축 등을 제시했다. 이밖에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을 설립해 광주의 자유·민주·인권 정신의 계승과 발전을 위해 다양한 학술·연구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 게재와 관련해서는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는 것은 제 입장이지만, 대통령 선거 공약사항이 될 수는 없다”면서 “이는 국민합의에 의해 헌법개정이 될 경우에 전문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국민적 합의가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윤 후보는 호남에서 20% 득표가 가능하겠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는 “호남에서 20% 득표라는 전략은 따로 없고, 지지율을 생각하지 않고 최선을 다할 뿐이다”면서 “국민의힘 후보라는 선입견이 아닌 호남에 대한 저의 진정성을 알리고, 국민의힘도 계속해서 바뀔 것이라는 점도 알아달라”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광주 선대위 필수결의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6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방문,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한 뒤 즉석연설을 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에서 “광주시민께서 소중히 지켜오신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되겠다”며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의 마음과 동행하는 국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앞서 윤 후보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 사고 현장을 찾아 피해 가족들과 인근 피해상인 대책위를 만나 철저한 사고경위 조사와 수사 당국의 신속한 수사를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광주 첫 일정으로 낮 12시께 5·18 민주묘지를 찾았지만, 오월어머니회 소속 일부 유족 10여명이 윤 후보의 추모탑 접근을 막으면서 참배광장에서 묵념만 하는 ‘반쪽 참배’로 대신했다. 지난해 11월10일에도 5·18민주묘지를 찾았지만,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인해 당시에도 반쪽 참배에 그쳤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이재명, 이틀째 PK 집중 공략

### “문 정부 공과, 온전히 떠안겠다”

#### 행정가 면모 강조尹과 차별화 野 ‘구도론’에 인물론 반격 “노무현의 꿈은 이재명의 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는 6일 이틀째 부산·경남(PK)을 돌며 지역 맞춤형 공약을 발표, ‘준비된 경제대통령’ 행보를 이어갔다. 선거를 한 달 앞두고도 초박빙 구도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전통적 취약지인 PK 중도층 표심을 확실히 붙들어 매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됐다.

이 후보는 전날 ‘울산 공약’을 발표한 데 이어 이날은 부산과 경남 봉하마을을 잇달아 찾아 ‘부산 공약’과 ‘남부 수도권 구상’을 공개했다.

이 후보는 부산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에서 부산지역 공약을 발표한 뒤 즉석연설에서 “국민과 한 약속을 천금처럼 여길지 헌신적처럼 여길지는 그들이 해 온 일들을 보면 알 수 있다”며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어준 국민의힘에 이 나라의 미래를 맡길 것인지 다시 한번 심사숙고해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PK는 역대 대선에서 보수 후보 지지 성향이 강했던 데다 현재 여론 조사상 윤 후보에 비해 열세에 있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해석됐다.

이 후보는 “지방자치단체장 3선을 거치며 우리

시민들에게 지킬 수 있는 약속만 했다. 공약 이행률이 평균 95%를 넘는다는”며 성남시장에서 시작해 경기도지사를 지내며 쌓아온 행정 능력을 강조했다. 국민의힘의 정권심판론, 즉 구도론에 맞서 인물론을 제차 정면에 내세운 것이다.

이 후보는 또 ‘남부 수도권 구상’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사저 마당에서 발표, 노 전 대통령의 지역 균형발전 구상을 그대로 이어받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 후보는 노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뒤 즉석 연설에서 “(노 전 대통령이 말한)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 사는 세상을 여러분도 기다리시느냐”며 “결국 운명은 여러분을 포함해 우리 국민들이 만드는 것”이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어 “사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꿈은 노무현의 꿈이고 문재인

의 꿈이고 이재명의 영원한 꿈”이라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를 이어 471 민주정부인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만들어내고, 3기 민주정부의 공과를 모두 온전히 떠안고 부족한 점을 채우고 잘못된 점을 고치면서 진화된 새로운 정부를 만들어내겠다”고 약속했다.

묘역 참배에는 김해 등 영남 지역구 의원들은 물론 이례적으로 호남 지역구 의원들도 대거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노 전 대통령이 주장했던 ‘동서 화합’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 대선 여론조사 브리핑

### KSOI 조사...안철수 8.4%

### 리얼미터 윤 43.3%·이 41.8%

설 연휴와 대선 후보 간 첫 TV토론(3일)이 포함된 기간에 이뤄진 다자 가상대결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인다는 결과가 6일 잇따라 나왔다. 설 연휴 민심과 첫 TV토론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 여론조사에서 두 양강 후보가 여전히 박빙의 레이스를 벌이고 있다는 의미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국민일보 의뢰로

## 다자대결, 윤석열 37.2%·이재명 35.1%

지난 3~4일 전국 성인 1006명에 실시한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에서 윤 후보는 37.2%, 이 후보는 35.1%로 나타났다. 두 후보의 지지율 격차는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내인 2.1% 포인트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8.4%, 정의당 심상정 대선 후보의 지지율은 2.2%다.

지지 여부와 상관없이 후보의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41.7%가 윤 후보를, 40.6%가 이 후보를 지목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활용한 전화 면접조사(무선 100%)로 진행됐으며, 응답률은 15.3%다.

리얼미터가 뉴시스 의뢰로 지난 3~4일 전국 성인 1076명에 실시한 다자대결 조사에서는 윤 후보가 43.3%, 이 후보가 41.8%로 나타났다. 지지율 격차는 역시 오차범위(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0%p) 안 1.5%포인트였다. 안 후보는 7.5%, 심 후보는 2.6%였다.

지지 여부와 별개로 당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 48.2%가 윤 후보를, 43.9%가 이 후보를 꼽았다. 이번 조사는 유선(5%), 무선(95%) 자동 응답(ARS) 조사로 이뤄졌으며 응답률은 7.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

## 2022년 세계 습지의 날 기념행사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 신이 내린 천상 갯벌 **벌교습지**

**일정** | 기념식 2022. 4. 8.(금) 13:00~ | 부대행사 2022. 4. 7.(목)~4. 8.(금)

**장소** |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생태공원]

주최 해양수산부 환경부 주관 전라남도 보성군 KOEM 에양환경공단